

AI발 기술주 훈풍, 이란 협상 기대에 증시 상승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DELL 호실적이 쓰아올린 AI 서버 수요 기대감

- 미 증시는 DOW +0.72%, S&P500 +0.22%, NASDAQ +0.20% 상승. 장초부터 등락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를 거쳐 소폭 상승 마감
- 전일 델(+32.8%) 실적으로 AI 서버 수요 성장 두드러지며 HPE(+12.6%), 슈마컴(+11.6%) 등 AI 서버인프라 동반 상승. 스노우플레이크(+6.8%), 서비스나우(+14.4%) 등 S/W 주에도 매수세 유입
- 대형 기술주는 차익실현매물 출회 양상. 한편, 장후반 엔비디아-MS가 각 X계정에 차세대 AI PC 티저 이미지가 업로드되며 장후반 방향성 엇갈리며 주가 급변. 엔비디아(-1.5%)에는 PC 칩이 미칠 마진을 영향이 작음, MS(+5.5%)에는 윈도우 종속성 강화 및 인프라 비용 절감 기대 반영

미-이란 MOU, 최종 승인만 앞둔 상황에서 다시 협상문 수정 눈치게임

- 미-이란 휴전 합의를 담은 MOU 초안 확정, 양국 승인만 남았다는 소식에 국제유가 지속 하락세 WTI \$87.4(-1.7%), Brent \$92.1(-1.8%)
- 주말중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란에 수정안 제시, 협상문 재조율 국면. 수정안 내용은 미공개. 투자자들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 개방 여부 및 중동 긴장 재확산 가능성 주시

유가 하락 여파로 국제금리 하락, 기준금리 방향성 주시

- 국제금리 하락 10Y 4.453%(-0.2bp), 2Y 4.014%(-1.1bp). 다만, CME FedWatch 상 금리 인하 기대확률은 거의 소멸, 인상 vs 동결 사이에서 움직이는 중
- 카시카리 총재는 인플레이 위험을 언급, 다만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에는 신중한 입장. 쿡 이사는 기업이 에너지가격을 상품가격에 전가하고 노동자 임금 협상에 반영할 가능성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관련해 이번주 6월 ISM 제조업 PMI 및 고용보고서 등 지표 중요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NVDA	엔비디아	-1.5%	엔비디아·MSFT·ARM의 X계정에 "PC의 새로운 시대"라는 문구와 대만 컴퓨텍스 행사장 좌표 게시, 대만 GTC 컴퓨텍스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 자체칩 N1X(가칭) 탑재한 새 AI PC '윈도우 온 암' 공개 암시. 기존 인텔·AMD 중심의 PC 시장을 겨냥한 ARM 기반의 윈도우 PC용 칩 시장 진출 가능성 부각되며 주목. MSFT 자사 개발자컨퍼런스 '빌드'에서도 관련 발표 예정
INTC	인텔	-5.1%	로이터 통신은 인텔과 3DGS가 파운드리 및 패키징 사업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인도 오디샤주에 \$3.3B 규모의 기판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라 보도. 또한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의 11년만의 PC 시장 재진입은 인텔·AMD x86 진영의 디레이팅 신호탄이라 코멘트
DELL	델테크놀로지	+32.8%	전일 장 마감 후 실적발표.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 AI 최적화 서버 부문 매출 +757%YoY 급증하며 주가 강세. 또한 레노버, 아수스와 함께 엔비디아 AI PC 1차 생산파트너로 선정. 번스타인은 MSFT의 AI 에이전트 다각화 전략에서 DELL의 가장 확실한 수혜가 기대된다고 언급
GOOG	알파벳	-2.5%	개발자 및 기업용 AI 이미지 생성 모델 '나노 바나나 2'와 '나노 바나나 프로' 기습 출시. AI 이미지의 고질적 난제였던 인물 일관성 유지와 다국어 텍스트 렌더링을 획기적으로 개선. 또한 비디오 입력 기반 이미지 생성 및 구글 AI 스튜디오와 제미니AI 엔터프라이즈 API를 통해 공급 개시
PLTR	팔란티어	+9.2%	전일 스노우플레이크 호실적에 S.W 업종 전반의 매수세가 이들 연속 유입되며 상승세 지속. 또한 미 정부가 드론 스타트업 직접투자한다는 소식, 직접투자대상은 아니나 낙수효과 기대
GAP	갭	-15.4%	실적발표. 2분기 연속 어닝 미스 및 올드네이비 부진에 따른 연간 매출 가이드نس 하향으로 주가 폭락